

露西亞의 思想史上 헤겔主義의 存在 (八)

(-양코·야-넬說에 依하여-)

田元培

그리하여 바쿠닌도 언제인가 베린노키-에게 다음과 가티 말한 일이 이었다. 「집에 돌아갈 때에 나는 어느 날 저녁이든지 커달란 무슨 怪物이 기다리고 있는 거가튼 甯김을 갖는다.」 이 運命은 그가 一八四〇에 伯林에 간 뒤에 일어난 것이다. 그는 當時 獨逸哲學의 首都인 伯林에 끈임 업는 憧憬을 가지고 있었다. 헤겔의 말과 가티 伯林은 自己의 生命을 保全하기 爲하여 無條件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안될 □□이었다. 그는 伯林에 가서 헤-겔主義者 벤켈 바칸스의 □□을 듯지 아니하고는 못들을 것가튼 甯김을 가졌었다. 그러므로 그는 이 꿈을 實現하기 爲하여 모든 手段을 다 썼다. 그리 하다가 그는 伯林에 갔다. 이 時代는 □□ 가튼 政治的 理念과 □□이 용소슴치고 있는 때였다. 여기서 그의 生活의 第二章이 시작하였다. 伯林은 그레게 對하여야는 決定的인 □□□ □和解의 浪漫主義에서 運命의 浪漫主義로의 □□點이 되었다. 바쿠닌은 여기서 벤델과 交流하였을 뿐만 아니라 否定의 □□을 □□하고서 社會的 現實의 □□을 由□하지마라 하얏는 만흔 政治學者들과도 交際를 매졌었다. 이리하여 바쿠닌은 여기서 次日을 自己의 過去와 □□하였다. 그는 이때 그의 누이에게 「나는 인제는 浪漫主義的 青年時代와 訣別하였다.」 □□官을 보냈다. 바쿠닌에게 對하여 具體的 現實이 이제는 無慈悲한 怪物로 보히었다. 그는 到處에서 잇는 모든 友人과 世界原理□에 對한 汎神論的 信仰과 머러졌다. 그는 生命을 □□하고 유령 그것이 어떠한 理念일지라도 그 理念의 現實을 爲하여 □身할라고 생각하였다. 그리하여 바쿠닌은 그의 青年時代를 詩的 幻影 가운데에 埋葬하였다. 그러나 이 幻影 가운데에는 다시 바쿠닌의 生活過程에 對하여서 뿐만이 아니라 歐羅巴의 全歷史에게 對하여도 危險한 새로운 한 幻想이 떠올랐든 것이다. □□한 이 人間은 헤-겔의 辨證法을 土臺로 하고 새로운 人間主義를 세웠다. 그러나 이 人間主義도 또한 幻想이요, 人類救濟에 對한 空想的 理念에 기대지 안혔다. 하지만 바쿠닌에게 對

하야는 이 幻想은 現實的 價値를 가진 것이었다. 夢想-그것은 바쿠닌에게
對하야는 꿈이 아니라 現實 그 自體였다. 그는 먼 無何有耶 속에 모든 現實
的인 것이 存在한다고 생각하였다. 그는 世界□神의 最高의 實在性 □□의 □
□을 □□하기 爲하야 헤-겔의 辨證法을 이 無何有耶 속에서 차저 헤매었다.
이 □□의 實現은 바쿠닌에게 엮서서는 自由理念의 世界的 □□이었다.

그리하야 露西亞에서는 헤-겔의 辨證法을 土臺로 하고 全人類를 窮極의으
로 救濟하려는 大膽한 企圖가 이러났다. 이 企圖 속에는 全人類, 全民族의
□□에 對한 露西亞인의 □□이 表現되었다. 이것이 露西亞의 世界主義였다.
이 世界主義는 치다에브에서 비롯하야 보스토에 보스키- 소로비요브 바쿠닌
에 依하야 完全한 形態를 보았다.

바쿠닌에게 對하야는 ××은 辨證法이다. 그는 大體 ××의 哲學과 矛盾의
哲學을 區別치 못하얏든 것이다. 辨證法的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바쿠닌에세
對하야는 單純한 思惟가 아니라 오히려 ××이었다. 모든 思惟는 그에게 잇서
서는 實現하는 것 卽 行動에 轉化할 思惟였다. 理念에 反對한다는 것은 그에
게 對하야는 神에 反對하는 것□□에 反對하는 것이었다. 바쿠닌에세 잇서서
는 神化한 □□主義로 改□되었었다.

一八四一年에 바쿠닌은 드레스덴에서 左翼 헤-겔主義者고 아놀드. 루-게와
□□이 되었다. 여기서 그는 또 共和主義 詩人인 게울그힐과 相逢하야 그이
하고는 一生을 通하여 親密한 友誼를 □□하였다.